

NGO 소개 :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윤현봉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이하 해원협)가 설립된 지도 만 5년이 지났다. 1990년대 우리나라가 해외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시작한 이후 세계 각지의 재난현장에서 걸음마를 시작하던 우리 NGO들이 아프가니스탄의 긴급구호사업을 시작하면서 보다 체계적인 활동을 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끼면서 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었다. 2005년 2월 현재 회원단체는 모두 39개이며(회원단체 일람표 참조) 지난 남아시아 쓰나미 피해지역 지원사업이 시작된 이후로는 국내의 재난 구조 활동을 하고 있는 많은 단체들로부터 가입문의를 받고 있다. 기존 구호단체들은 이제 우리도 전문기술을 갖고 보다 효율적으로 ‘한국’을 알릴 수 있는 활동을 하는데 해원협이 구심점이 되라는 요구를 하고 있고, 한편에서는 국내 각종 재난구호 사업을 해 온 단체들은 이제 점점 커져가는 자원봉사 욕구를 해외로 뻗어나가 보려는 중요한 시점이 도래한 것 같다.

우리나라의 긴급구호 및 개발사업은 민주화 운동이나 여성, 환경, 소비자운동 등 다른 분야의 시민운동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짧은 역사를 가졌지만 수원국 국민이 돼 본 흔치 않은 경험을 가졌다는 장점이 있다. 세계 2차 대전 이후 유럽의 재건과 복구를 위해 활동하던 유수의 국제적 NGO들이 한국전쟁 후 한국에 와서 구호 개발 사업을 진행하였고 그러한 단체들의 활동 경험들이 지금의 국내 복지단체들에 의해 잘 전수되고 있는 것이다. 기회가 닿는 대로 이들 단체들의 역사나 활동 상황에 대해 제각기 따로 접근해야 할 일이지만 우선 이 글에서는 해원협의 회원단체의 역사와 유형을 일괄 정리해 봄으로써 우리나라 개발 NGO의 뿌리를 더듬고 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개발 NGO의 과제와 방향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회원단체의 역사와 유형

1. 한국 개발NGO의 발달배경

아다시피 우리나라는 6.25 후 각국 정부로부터 군사적으로는 물론 경제적으로 수많은 원조를 받았다. 동시에 외국의 많은 NGO들도 우리나라에 와서 활동을 하였다. 이들 외국NGO중 일부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개발 NGO의 한 축이 되었다.

1950년대 세계각지로부터 들어온 “외국민간원조단체”들은 1952년 외국민간원조단체한국연합회(KAVA : Korea Association of Voluntary Agencies)를 결성하였으며 68년에는 111개 단체에 이르게 되었고 75년 93개, 85년 79개, 93년 60개를 유지하다가 해체하였다.³¹⁾

기독교 선교사업의 일환으로 활동을 해왔던 이들 회원단체들은 현재 대부분이 철수하였지만 궁극적인 목적이었던 선교활동이 우리나라에 뿌리내려 한국의 기독교가 크게 확산되었고 90년대 들어서면서 한국의 해외선교, 개발 NGO활동의 모태가 되기도 하였다.

굳이 개발NGO를 연대별로 정리하자면³²⁾ 제1기는 1970년 이전까지로 주로 외국으로부터 원조를 받던 수월기. 제2기는 70년대부터 80년대까지의 자립기 또는 준비기로서 한국은 경제성장에 집중하고 외국으로부터 받는 원조는 줄어들어 회원단체의 수는 줄어들었으나 한국의 기독교가 뿌리를 내려 세력이 커지면서 교회들이 해외선교에 관심을 갖게 되는 시기.

제3기는 90년대, 지원기. 경제력 향상으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책임성이 확대되고 세계화, 국민 의식의 변화, 그리고 기독교의 확산을 배경으로 제3세계에 진출을 꾀하려는 새로운 NGO가 생기고 지원규모도 늘어났으며, 때마침 소말리아, 르완다 내전 등으로 제3세계 빈곤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확대됨에 따라 모금운동도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개발NGO가 뿌리를 내린 시기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러나 개발NGO와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과의 관계 면에서 보자면, 2001년 아프가니스탄 사태와 2003년 이라크 전쟁이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아프간에 3년간 총 지원금 4,500만불 중 250만불, 이라크의 경우 2003년도 지원금 6천만불 중 약 450만불을 민간단체에 지원하였다. 이로써 한국의 개발 NGO는 정부가 중요한 기부자가 되었고 협력단을 통해 민간단체의 사업이 시행되고 국제NGO에 중요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 이전에도 협력단의 민간협력팀에서 연 100만불 정도 규모로 한해 약 20여개 단체의 해외사업에 50 대 50의 매칭 펀드 형

31) 서경석, 개발NGO의 실태와 발전방안, 중앙대석사학위논문, 1998,p18.

32) 서경석, 전제서, p27.

식으로 지원해 오고 있었으나 이라크 아프간 사업의 경우 자금의 규모면에서 획기적으로 NGO의 활동, 그 중에서도 긴급구호활동을 키우는 배경이 되었다. 90년대 중반기의 개발NGO의 활동이 국민 모금을 통한 개발사업 위주였다면 2001년 이후에는 정부의 기금이 큰 비중이 되어 국제기구 및 수원국 현지NGO 혹은 현지인과의 협력을 시도해 보는 사업으로 전환한 특징이 있다.

2. 회원단체의 유형³³⁾

(1) 수원국에서 지원국 NGO가 된 단체

6.25 이후 외국에서 들어왔던 단체 중 현재 남아 있는 기관들은 대개 기독교 선교단체로서 국내 복지사업을 실시했던 관계로 상당한 규모의 국내 복지사업을 하고 있으며, 국내 사업들은 사회복지협의회를 구성하여 복지부와 협력하고, 북한사업부는 또 따로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에 가입하여 통일부와, 끝으로 해외사업부는 우리 해원협을 통해 협력단과 활동한다. 따라서 모체가 되는 단체 자체는 조직이 비교적 크다고 할 수 있다.

먼저 한국의 고아와 미망인을 돕기 위해 미국의 밥 피얼스와 한경직 목사에 의해 1950년 한국에서 처음 설립된 월드비전은 지금은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1억 명의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긴급구호, 지역개발 사업을 펼치는 국제적 단체가 되었다.

외국의 기금으로 국내지원을 하다가 1992년부터 본격적으로 해외지원으로 전환하여, 사랑의 빵, 아동결연, 기아체험 24시간 등의 자체 모금활동을 통해 국내는 물론 북한, 제3세계 빈곤 국가를 돕고 있다.

국제조직이니 만큼 긴급구호 현장에서는 본부의 계획과 지시에 따라 각국 지부가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움직여 효과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며 높은 수준의 활동지침이나 행동강령 등이 잘 갖추어져 있어 다른 단체의 역량 강화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역시 1950년 세계 어린이의 생존과 발달을 위한 유니세프의 활동의 일환으로 한국에 와서 우리나라 아동복지를 위해 수많은 사업을 시행해온 UN기구였다. 88년부터 해외지원단체로 전환을 준비하여 93년 UN기구는 완전 철수하고 94년부터 사단법인으로 등록한 후 다양한 모금 사업을 전개하였다. 현재는 158개 개발도상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영양, 보건, 식수 및 위생, 교육, 긴급구호 등 유니세프의 어린이 구호사업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1994년부터 2003년 말까지 뉴욕본부를 통해 4천만 불(약 440억원)의 해외

33) 자세한 내용은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세계빈곤지역의 한국NGO, 2003년 민간단체활동자료집 참조.

사업 실적을 냈으며 그중 약 20%는 한국위원회가 직접 선정한 수혜국(북한, 몽골, 베트남, 아프간, 이라크, 이디오피아, 중국 등)에 지원하고 있다.

한국복지재단은 1948년 미국 기독교아동복지회(Christian Children Fund)의 지원으로 아동복지 사업을 시작해 1986년 한국기관으로 독립하였고 현재 전국 16개 지부와 19개 지역사회복지관, 5개 아동학대예방센터 중증장애아동 요양시설 등을 운영하는 국내 최대의 민간 사회복지기관이 되었다. 1994년 법인명칭을 한국복지재단으로 바꾸고 1995년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지에 해외지원 사업을 시작하였다.

대한적십자사는 1903년 대한제국이 제네바협약에 가입하면서 고종황제칙령 47호에 따라 발족한 단체로서 위의 세 단체와는 성격을 달리하지만 국제적십자와 함께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활동한다는 점과 국내사업의 규모 등의 면으로 이 분류에 포함시켰다. 1949년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정에 따라 재조직 된 이 단체는 세계의 긴급구호현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역할을 함으로써 해외원조사업의 중요한 축이 되고 있다. 전시 군 의료보조기관으로서 전상자 구호, 국내외 재난 발생시 구호대책 수립과 재난자 구호, 의료, 혈액, 간호, 안전사업, 자원봉사 및 청소년적십자 사회교육, 이산가족 재회 주선 및 남북적십자회담 운영, 적십자 이념 및 국제 인도법 보급, 기타 국민 복지 증진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한다.

1956년 헝가리 민중봉기 때 대한적십자사의 이름으로 현금 4,200불과 구호품 32,000불을 보냄으로써 역사적으로 한국의 NGO가 해외원조를 한 최초의 기록을 남기기도 했다.

2002년 현재 진행 중인 해외사업은 스리랑카, 동티모르, 아제르바이잔, 이라크 등지에서 보건, 응급처치 등의 사업과, 몽골 청소년사업 우즈베키스탄에서 인쇄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캄보디아의 혈액 사업 등을 하고 있으며 기타 주요 재해국이 생기면 긴급구호를 실시한다.

(2) 우리나라 빈곤퇴치 사업의 해외진출

빈곤퇴치 사업의 주요 사회지표인 인구조절, 보건, 농산물 개량 등의 사업에 있어 대한민국은 유례 없는 성공을 거둔 나라이다. 그 성공의 배경에는 대한가족계획협회, 기생충박멸협회, 결핵협회 등의 성공적인 활동이 있었다. 이들 단체들은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함께 발전해온 단체였으나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뒤에는 새로운 사업으로의 진출을 모색하게 되었다.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는 1961년 대한가족계획협회로 창립하여 같은 해 국제가족보건복지연맹에 가입하였다. 우리나라 가족계획은 1988년 인구증가율 1% 조기달성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할 만큼 성공적이었다. 1996년 한국성문화연구소를 개소하고, 1998년 가족계획과 생식보건국제훈련을 실시하면서 국제협력의 길을 열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역시 1964년 한국기생충박멸협회로 시작해 1966년 기생충질환예방법이 공포되었고, 1971년에는 제1차 전국장내기생충 감염률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1986년에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로 개칭하고 1996년에 한·중기생충협력 5개년사업을 시작으로 2000년 한·라오스 기생충 퇴치 5개년 사업을 실시하였고, 2001년에는 북한 기생충관리 및 건강증진 사업을 위한 합의를 교환하였다.

가나안농군운동세계본부는 기독교 이념에 따른 단체로서 뒤에 다루게 될 종교적 배경을 가진 단체로 분류할 수도 있겠으나 우리나라 농촌운동을 시작으로 전 세계의 빈곤을 퇴치하기 위하여 해외사업으로 진출하였다는 점에서 이번 항에 넣게 되었다.

가나안농군학교는 복민주의의 정신을 바탕으로 정신개혁과 생활혁명운동을 통하여 전 세계의 영적, 물질적 빈곤을 퇴치함으로써 가나안복지 공동체를 건설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다.

(3) 종교적 이념에 따라 활동하는 단체들

1956년 적십자사의 헝가리 원조 이후 우리나라는 별다른 해외 원조활동을 하지 못하다가 1970년대 이후 기독교의 발전과 함께 제3세계에 진출했던 초기 선교사들이 현지에서 선교의 일환으로 학교, 탁아소, 병원 등의 구호개발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90년 방글라데시에 등록한 방글라데시개발협회(KDAB)와 전두환대통령의 케냐 방문 시 지원한 30만 불을 기반으로 케냐 정부에 NGO로 등록한 제4의 물결 (FORTH WAVES), 그리고 1993년 네팔에 등록한 호산나 등이 기록으로 남아 있다.³⁴⁾

한편 국내에서는 교회가 크게 성장하여 세계적으로도 몇 손꼽히는 교회들이 생기게 되면서 기독교 고유의 복음주의, 선교의 일환으로 단체를 설립하여 해외로 눈을 돌리는 단체들이 생겨났다.

굿네이버스는 1991년 3월 방글라데시 구호, 개발사업 지원을 시작으로 활동을 개시하였다. 무엇보다 한국인에 의해 설립된 첫 개발NGO라는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1993년 소말리아 난민구호, 1994 르완다 난민구호 시 현지에서 UNHCR에 NGO로 등록하고 긴급의료봉사와 2년여에 걸친 상설사무소 운영으로 난민 자립활동을 한 것이 계기가 되어 1996년 UN 경제사회이사회의 포괄적 협의 지위를 받은 NGO가 되었다. 1995년에는 미국에 현지법인 등록을 하고 북한 신의주 어린이 급식사업을 함으로써 북한돕기 사업에도 진출하였고 젓소보내기, 양계장사업 등 굵직한 사업들을 해내었다. 1999년 코소보 난민, 터키 지진 참사에 긴급의료봉사단 파견, 2000년 르완다 현지 법인등록, 2001년 아프간 긴급구호 1~8진 파견 등 우리나라 긴급구호 및 개발사업에 한국 자생단체로서 획기적인 활동을 펼쳤다.

선한사람들은 여의도순복음교회가 국내외 불우이웃을 위한 각종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전개하던 중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기구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제3세계를 위한 구호와 개발사업을 위해 1999년

34) 이일하, 한국의 개발 NGO활동 현황과 발전방향, 해원협 개발 NGO 실무자 교육 교재, 2004, p.2

설립한 단체이다. 2000년에 중국 경신진병원을 개원하고, 2001년에는 베트남컴퓨터교육센터, 2002년 인도 탈레가온 학교 기공식, 케냐 의료봉사활동 및 아프간, 코트디브와르 난민 지원 등의 사업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다.

아시아문화개발협력기구는 1983년 설립되어 전통적인 빈민구제, 자선사업 보다는 인문, 사회, 종교, 예술, 문화 등 각 방면의 전문인력 교류와 학술교류에 중점을 두고 국가간 상호이해와 관계증진 도모를 주력하고 있다. 알타이문화권과 중앙아시아 및 중국소수민족 연구를 바탕으로 1989년 국내 체류 인도차이나 반도 난민을 대상으로 의료 및 구호활동을 펼치다가 1991년 쿠르드난민의 의료 진료와 1992년 시베리아, 몽골 단기 의료봉사를 시작하였다.

장미회는 1965년 미국 감리교 로빈슨 선교사와 유재춘 목사에 의해 인천기독교사회관에서 모임을 갖기 시작하였고 그 중 서울기독교사회를 중심으로 사단법인 장미회를 설립 1974년 보건복지부에 등록하여 간질환자 진료를 중점으로 국내순회 진료하였다. 1985년 네팔에도 장미회를 설립, 가우리상카 병원을 건립하였고, 1995년에는 네팔 국립직업기술훈련센터를 위탁받아 미용과, 양재과, 전기과, 컴퓨터과를 운영하고 있다.

1992년 설립된 호산나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저개발국에 개발사업, 의료사업, 보건, 교육사업 등 각종 구호사업을 위하여 네팔에서 활동을 시작하였다. 1997년에 사단법인으로 외교부에 등록하였고 현재 네팔에서 어린이 복지센터인 Joy House, 도티 수정병원, 수정영재학교 다델두라 보건대학, 미얀마의 농업개발, 이집트 글로리기술학교, 케냐, 베트남의 유아교육, 멕시코에서 신학교를 설립하였다.

1991년 북한 주민을 돕기 위한 사랑의 의료품 나누기 운동을 시작한 일단의 기독교인들이 1995년에는 한민족통일준비모임을 결성하여 대북의료지원사업을 하다가 1996년 한민족복지재단으로 재탄생하였다. 1999년 러시아의 고려인을 위한 보건, 의료지원사업을 개시하여 전 세계에 거주하는 한민족을 위해 보건의료전문 봉사단체로 발돋움 하였다. 2002년 아프가니스탄에 의료봉사단을 파견하면서 본격적인 긴급구호활동에 참여하게 되었고 교육, 보건, 여성, 지역사회개발 등으로 활동영역 역시 확장하였다. 카불 외곽의 테진에 수로를 건설하고 양계사업을 통해 소득증대를 꾀하는 등 사업 내용도 다양화 하였다. “보건의료전문 NGO”를 목표로 2002년 4억5천원이던 사업실적을 2003년 예산 24억 5천으로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등 빠른 속도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는 1971년 미국인 래리워드(Larry Word)박사에 의해 창립된 국제기구로서 국제적인 선교구호단체라는 점에서 월드비전과 성격을 같이 하지만 우리나라 원조를 위해 들어온 단체가 아니라 1989년 우리나라에서 먼저 세계의 기아문제에 관심을 갖고 설립하여 국제기아대책기구와 파트너십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성격을 달리한다. 따라서 국내사업을 중점으로 하는 위 단체와는 달리 국제개발 사업을 중점으로 하여 전 세계 광범위한 지역에 사업을 시행하는 본격적인 구호개발단체가 되었다. 국제기아대책기구는 태국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12개국이 기아대책의 이름으

로 활동하고 있다. 1990년에 방글라데시, 케냐, 페루 등 7개국에서 사업을 시작였고 1992년 소말리아 내전에 의한 난민촌에 식량을 전달하였고, 우간다 이디오피아 등 아프리카 지역 및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의 중앙아시아지역, 페루, 볼리비아 등 중남미에도 선교사를 파송하였다. 소말리아, 르완다, 아프가니스탄 등에 긴급구호와, 어린이 후원, 수자원개발, 학교건축 등의 교육사업, 농업개발사업, 의료보건사업, 무료급식사업, 영적개발사업 등 광범위한 지역에서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는 본격적인 개발NGO이다.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의 경우에도 기독교적 사랑의 정신에 근거하여 국제기구에 가입하였다는 점에서 위 기아대책과 같은 성격의 단체이다. 집 없는 가정을 위해 최저 건축비를 무이자 장기분할 상환형식과 자원봉사 노역을 통해 집을 지어준다는 이 국제헤비타트운동은 현재 전 세계 83개 나라에서 십만 채가 넘는 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사업영역과 목표가 전문화 되었다는 장점을 지닌 이 사업은 자원봉사 영역을 확장하고 모금액의 10%는 다른 나라의 집을 짓는데 지원한다는 정신으로 해외 개발사업에 진출하였다.

위대한 종교가 모두 그렇듯이 이웃을 돕는다는 기독교의 박애정신은 불교의 자비정신과도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 한국제이티에스(JTS)는 법륜스님이 1991년 인도의 불교성지 순례 중 · 캘커타에서 우연히 만난 모녀를 돕지 못한 미안함을 간직하고 있다가 가난한 이들을 돕겠다는 마음으로 국제구호 단체를 설립하게 되었다. 1993년 캘커타 근교에서 의료캠프를 개설하고 94년에는 초등학교인 수자타 아카데미를 개교하였다. 이후 스리랑카, 북한, 조선족, 방글라데시, 미얀마, 몽골 등 아시아 9개국에서 느리지만 단단히 뿌리를 내리는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다.

이웃을 돕는 사람들 역시 불교에 기반을 두고 만물공존과 자비정신을 토대로 소외받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세계 기아/발병/아동 구제기구를 목표로 1996년 창립하였다. 1997년 네팔에 현지법인 ‘Nepal Budda Sewa Kendra’를 설립하고 ‘아침을 여는 작은 마을’을 지어 공동작업장, 의료지원 문맹퇴치, 화장실 건립 등 보건사업 농작물 연구 등 다각적인 사업을 벌였다.

한편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가톨릭에 기반을 두고 국내외 가난한 이를 도와 영원한 생명운동, 나눔운동 등을 실천하기 위한 단체로 1988년 세계성체대회를 계기로 한마음한몸운동의 정신을 실천하기로 하였다. 국내에서 장기기증운동과 참생명학교 등의 생명운동과 함께 해외사업으로 몽골, 중국, 짐바브웨, 콜롬비아, 베트남, 미얀마 등지에서 의료봉사, 유아원, 청소년지원, 노인복지 등 다양한 사업을 모색하고 있다.

(4) 자생 개발NGO

지구촌나눔운동은 세계 각지에서 필요로 하는 개발협력 및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환경보전을 도모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구촌 건설에 기여하고자 1998년 설립된 단체이다. 베트남 허떠이

성에 한·베협력센터를 건립하고 직업훈련과, 농촌개발, 교육, 보건의료 활동을 통해 빈곤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사업을 벌이고 있다. 2001년부터 몽골, 울란바토르 자르갈란트 지역에 친환경 축산시범마을을 조성하여 젓소은행을 운영하고 있다. 필리핀 지역에서는 빈민아동교육사업을 시행하고 이후 중국, 이라크 등지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개발NGO로서의 면모를 착실히 다져가고 있다.

밝은사회국제클럽한국본부는 1975년 세계대학총장회에서 더 좋은 인류사회를 위해 제창된 보스턴 선언에 따라 1978년 설립되었다. 1997년 연변 자치구 화룡시에 소50마리를 사 준 것으로 시작하여 마을 진입로 확장, 마을회관 건립, 부엌 및 화장실 개량 사업 등을 시작하였다. 2001년에는 면양 150마리와 버섯 재배장을 마련해 주는 등 소득증대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의류와 신발 등을 수집하여 인도에 보내기도 하였다. 2003년에는 용정시와 카자흐스탄으로 사업을 확장해갈 예정이다.

세계청년봉사단은 젊은이들과 중·장년층 전문가, 퇴직자 등을 세계 각국의 NGO 및 비영리기관에 국제자원봉사자로 파견, 이웃사랑과 봉사정신을 실천하게 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1999년 사업개시 이래 세계 27개국 60여 개 NGO에 총410여명의 단원을 파견하였고, 인도, 아르헨티나, 우크라이나, 필리핀, 캄보디아 등 6개국에 해외 코디네이터를 두어 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 관리하고 있다. 처음에는 청년봉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중·장년층 봉사까지 범위를 확대해 가고 있다. 여행을 통한 NGO봉사체험과 해외시민운동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2003년 9기 봉사단을 보내기 까지 총 27개국 20여개 단체에서 아동, 노인보호, 지역사회구호, 방역, 조사, 통계, 건축, 수자원, 농기계정비, 농촌개발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문화교류의 네트워크를 형성해왔다.

(5) 전문직단체의 해외봉사

개발NGO에 있어 기독교 선교가 큰 축인 것처럼 전문직 단체가 자신들이 가진 전문기술을 가지고 빈곤지역을 돌보는 것도 또 하나의 큰 축이 되고 있다.

대한악안면성형재건의과학회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산하단체로서 주로 턱 부위의 선천적, 후천적 질환을 다루는 의사들의 학술단체이다. 1962년 창립하였으나 해외봉사는 1995년 베트남에서 처음 시작하였다. 이어 1996년부터 중국 연변대학 내 복지병원과 베트남의 토순구개열(언청이) 환자 무료수술을 해오다가 2001년에는 카자흐스탄 알마티시 구강악안면외과 제5병원에서 봉사하였다.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은 1993년 한의사 몇 분이 뜻을 모아 네팔에서 처음 의료사업을 시작하였다가 카자흐스탄, 사할린, 이디오피아 등지로 점점 확대해 나가게 되었다. 값비싼 의료장비 없이 진맥과 침으로 진료 가능한 한의학의 우수성이 빈곤지역의 의료사정이나 단기의료봉사의 한계도 극복할 수 있는 장점을 가졌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넓은 지역으로 퍼져나갈 수 있었다. 현재는 한국-우즈베키스탄 친선한방병원(1997년), 몽골한방병원(2001), 한-캄보디아 한방병원(2001)등을 개원하였다. 개발도상국의료지원과 남북공동의료봉사사업, 세계의료시장 진출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2001년

초등학교 6학년 도덕교과서에 활동내용이 실리기도 하였다.

3. 협의회 주요 역할

(1) 역량강화의 구심점

이상으로 해원단체를 유형별로 정리해 봄으로써 해원협 구성원들의 대강을 살펴보았다. 위에 적은 외에도 국제봉사기구, 어린이육영회와 같은 단체들이 있고, 새마을중앙회, 아프리카어린이를돕는모임, 텐탈서비스 등의 단체들이 새로 가입을 하게 되어 해외개발사업을 하는 단체들은 이제 명실공히 해원협을 중심으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40여 개에 달하는 단체들이 역량 면이나 사업규모 면에서 그리고 운영 철학적인 면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의견을 모으고 조율하는 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 큰 단체는 큰 단체대로 막강한 모금력과 인력, 해외 전문 개발 NGO와 연계 등에 의해 늘어가는 업무량에 쫓기면서도 구호 현장의 전문성에 비추어 한국의 다른 NGO들과 업무분담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위해 연대를 꾀하고, 작은 단체는 또 작은 대로 기술, 인력, 자금 상의 열세를 다른 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극복해 보려는 욕구가 있다.

특히 최근에는 아프가니스탄의 긴급구호 사업과 이라크, 그리고 이란의 지진사태, 그리고 용천의 폭발 사고에 이르기 까지 짧은 시간에 세계적 재난지역에 동참해 본 경험을 통해 이제는 전문적이며 효율적인 구호활동을 펴야겠다는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 막대한 ODA 자금을 가지고 <Japan Wind>나 <Platform>이라는 단일 이미지를 가지고 활동하는 일본을 본받아 우리도 경쟁적인 관계를 접고 정보공유와 중복을 피해 한국의 이름으로 전문화해 가야 한다는 인식도 깊어가고 있다. 그런 점에서 해원협과 같은 구심점은 꼭 필요하다.

해원협으로서는 평시에는 월드비전 등의 국제NGO, UNHCR, 혹은 영국의 협의체인 BOND, 호주의 ACFOA 등 국제적인 단체의 오랜 기술이나 프로그램, 강사진 등을 연계하여 실무진의 역량을 강화하고 유사시 연락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실무자 교육 외에도 최근 국내에는 유학이나 국제대학원의 설립 등을 통해 젊은이들의 국제적인 이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국내 자원봉사 운동의 역사도 10여년에 이르면서 이제는 다종다양한 수준의 해외 지원봉사를 원하는 욕구도 높아지고 있다. 해원협은 장기적으로 이러한 욕구를 수용하여 국내 개발 NGO의 동참자를 확대하는 한편, 세계 속의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한국인의 모델을 개발해 나가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KOICA의 지원 아래 영국의 BOND 등의 강사를 모셔와 프로그램 개발과 사업평가 기법을 배우고 실습하는 워크숍을 하는 한편, 긴급구호 현장과 개발사업 현장에서 필요한 매뉴얼을 번역해 공급하고, 현장 경험을 서로 나누며 인적 정보망을 구성하여 자료를 축적하는 활동을 한다. 실

무자는 교육의 수강자이자 강사이며 관심 있는 일반인들은 먼저 자료를 구해볼 수 있게 한다.

또한 구호활동전문가 스스로의 신변 안전을 확보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긴급구호 현장은 늘 위험이 따른다. 특히 전쟁 난민이나 정치적 반군이 있는 지역에는 언제나 적이 있고 충기가 있는 지역으로 목숨이 위태로운 경우가 많다. 현재 해외사업부에 많아야 4~5명, 적게는 1명의 실무자가 모금, 홍보, 현장지휘 등 모든 일을 처리해 내고 있는 현재의 사정으로는 안전 문제의 중요성을 절감하면서도 위험의 정도를 파악하고 신변안전 문제를 확보할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럴 때를 대비하여 해원협은 평소에 해원단체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유사시에는 관련 정보를 공급하는 주체가 되고자 한다. 아직 한국의 NGO는 활동가의 안전을 위해 훈련이나 안전지침 없이 심지어 생명보험조차 없이 움직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UN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소중한 생명을 위해 안전대비책이 꼭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해외개발사업은 대개 해외선교와 맞물려 있는 경우가 많고 이들이 주로 이슬람국가에서 활동하다가 현지인들의 반발을 살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요하는 일이다.

(2) 개발NGO의 대외 창구

90년대 들어 우리나라 시민사회의 성숙과 더불어 우리나라가 세계 속의 선진국으로서 성장해 나가는데 시민단체의 역할이 컸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특히 OECD 가입과 더불어 제3 세계의 이웃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려는 노력이 정부와 학계, 기업 등에서 일어나면서 개발NGO와의 협력에 대한 요구도 일어났다. 해원협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각계의 의견조율이나 정보공유의 창구 역할을 하고자 한다. 시민단체로서 정부의 정책에 대한 건의와 감시 역할을 할 때에도 회원단체의 힘을 모으는 창구가 되어야 한다. 한편 아직도 GNI대비 0.06%에 불과한 ODA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모으는 일에 있어서도 관련 정부와 함께 국민을 설득하고 관련 기관에 압력을 행사하는 창구가 되어야 한다.

기업에서도 국내 복지사업에 치중했던 과거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활동분야이며 시장개척과 투자가 능지로서의 제3 세계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대하고 있으며 최근 설립된 각 대학의 국제관계대학원의 개발협력과정의 학생들이나 관계자들은 이 분야에 대해 학술적으로나 경험학습장으로서 관심이 매우 크다. 이 모든 대외적 관심에 각 단체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려므로 부적당한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이번 쓰나미 긴급지원 사업의 경우에도 해원협이 창구가 되지 않았다면 정부나 다른 분야의 시민단체들도 시간적으로나 인력 면에서 많은 낭비가 있었을 것이다. 해원협은 신속히 관련 정보를 회원단체에 알리는 한편 회원단체의 활동상황을 일일별로 정리하여 정부와 언론계에 알리는 역할을 하였다. 현지 도로가 유실되어 구호물자가 항구에 묶여 있을 때 IOM(국제이주기구)에 연락해 무사히 반다아체의 회원단체 직원에게 보낼 수 있었던 것이 단적인 예다. 긴급구호 현장의 후발주자라는 열세를 조금이라도 만회하기 위해서는 전문 분야를 선택해서 집중하고 네트워크에 주력해서 적은 자

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힘을 써야 할 것이며 그 중심에는 교통정리를 할 주체로서 해원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개별단체들이 재건복구를 위한 개발사업을 준비해가는 이 시점에서 해원협은 기왕에 마련된 민관 협력 채널의 업무 내용이나 성과도 따져 보고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자료 혹은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모처럼의 경험이 사장 되지 않고 언제 닥칠지 모를 미래의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비하는 길은 우선 자료 축적과 정보 공유, 그리고 평소의 전문가 훈련 등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제약 때문에 NGO의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분야에도 주목하고 개선을 위해 힘을 모으는 창구가 될 것이다. 이번 쓰나미의 경우, 정부가 약속한 복구지원금 5000만 달러, 대한적십자사의 170억원, 그 외 다른 단체에서도 적지 않은 모금을 통해 모처럼 자금이 많아서 사업비를 어떻게 잘 쓸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하는 이 와중에도, 평상시 긴급구호 전문가의 교육이나, 구호활동의 핵심 요건인 구호물자의 준비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는 여전히 어렵다. 이번 ‘쓰나미 특수’가 지나가면 다시 우리 단체들은 여전히 대비 없이 영세한 NGO로서 다음 재난을 맞게 될 것이다. 따라서 긴급구호의 특성과 기존 법 제도가 맞지 않는 부분은 미리 관계요로에 알려 개선하는 일도 해원협의 주요사업이 된다.

4. 맺는 말 - 협력단과의 관계

우리나라가 과거 세계로부터 받은 빚을 갚아야 한다든가, OECD 가입국가로서 평균 권고안의 약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ODA를 늘려야 한다는 것, 세계와 더불어 살아가는 세계 교역량 12위의 산업 국가 한국의 할 일 등을 국민과 국회, 그리고 기획예산처 등의 관계요로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알려야 할 것인가는 정부, 좁게는 협력단과 해원협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해야 할 일일 것이다.

지난 1월 경제부총리께서 해마다 약 0.01%씩 2009년이 되면 GNI 0.1%에 도달토록 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실현을 위해서는 역시 민간단체가 국민의 여론을 환기시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ODA 중에서도 무상원조의 비율을 점차 늘려서 ODA의 질을 높이는 데도 해원협과 협력단이 한 목소리를 모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해원협의 현재 행정력이나 조직적인 면에서, 진정한 협력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방면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원조를 할 때에는 현재 협력단이 하고 있는 정부 대 정부 간 원조로 하는 방식 외에 NGO와 함께 하는 방식을 찾아서 ‘얼굴 있는 원조’를 통해 한국을 쉽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봐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협력단이 지어 준 병원에 NGO의 의료진이 파견 된다든지, 협력단이 지어 준 학교에 NGO가 교사를 파견하는 방식을 통해 시설의 이용도를 높이고 한국과의 친선도 꾀하며 동시에 우

리 NGO의 역량을 강화해 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불러올 것이다. 지금 대 NGO 사업은 민간협력팀의 약 100만 불 규모의 예산에 가둬 두고 이라크, 아프간 사업처럼 그때 그때 특별 편성되는 예산에 따라 지혜를 불러모으는 방식에서 벗어나 NGO를 진정한 동반자로서 대우하고 방향 모색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 점에서 작년 협력단의 NGO 봉사단 파견사업은 민과 관이 협력한 혁신사례가 된다고 본다. 참여정부가 출범하여 의욕적으로 추진한 해외봉사단 파견 사업은 우리 청년들을 세계로, 특히 개발도상국으로 보내 그 나라에 대한 이해를 도우면서도 한국의 이미지를 높이는 사업인데 기존의 정부 대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던 사업에 드디어 NGO가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사업을 다각화 하였다는 장점이 있다. 물론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었고 NGO 측의 준비 부족으로 의욕만큼 대규모 봉사단을 보내지는 못했지만 현재 8개 단체에서 33명을 9개 국가에 파견하였고 올해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해 볼 계획을 갖고 있다.

이번 사업으로 협력단은 NGO와 협력하여 사업을 다양화한 한편 우리 NGO는 현지 사업소에 훌륭한 수준의 봉사단원을 수급하고 정부와 함께 관리해 봄으로써 행정력을 보완하는 기회가 되었다.

어쨌거나 5살박이 해원협은 회원단체와 협력단의 관심 속에 인력 면에서나 재정적인 면에서 해마다 발전을 거듭해 가고 있다. NGO는 속성 상 구성원의 능력이나 관심 사항에 따라 사업효과가 제로에서 무한대까지 확장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해원협은 좋은 인력을 확보하고 방향 설정을 잘 해나감으로써 협력단의 명실상부한 동반자가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다.